

● 감사헌금

고삼녀 권치임 김기호(최영숙A) 김도순(김영희) 김민호(김유자)
김삼순 김성민(부) 김수용(이선정) 김재신 김창희 문무홍(권현자)
문종애 문진경 박금란 박소명순 송민식(송혜정) 송영주B 신예섬
신이건(김해옥) 신현미 안영균(전숙자) 양나경 유명호 이선옥
이성만(정영희) 이수남 이승학(김복실) 이영숙 권영자(이희원)
이희준(양명순) 임승호(오영숙) 장영심 정강용(정은민) 정성운
(이은경) 정순근(송은주) 정승호(최영숙B) 정외자 차창철(김두순)
최규하(최경희) 최재인(정채윤) 추한철(추선우) 홍기철(고난홍)
무명1

● 일천번제(9월 11일 기준)

강효중(이만순)(2434) 권모세(717) 권제홍(김은주)(874) 김상정
(김상희)(481) 김수용(이선정) 김신철(정외자)(2717) 김영대(차연희)
(3523) 김영일(김연순) 김옥희(1075) 노만수(박순분)(3472) 도상원
(1538) 문무홍(권현자)(685) 박성찬(장희영)(685) 박진성(정영혜)
(837) 신이건(김해옥)(2095) 안영균(전숙자)(531) 양나경(966)
양양춘(3) 염동용(윤영심) 오영희 이미숙 이보수(노정숙) 이성만
(정영희)(159) 이순아(2952) 이정곤(신현미)(2126) 임기남(3181)
임승호(오영숙) 장영심(111) 정성운(이은경)(673) 정순근(송은주)
정순애 주선덕 주희정 진도성 최규하(4382) 최승렬(정미숙) 최재인
(정채윤) 한옥희(520) 무명1

● 생일헌금 최순심(김하현) 이명애 이보수 이영숙

● 전도특별헌금

강문순 강중환 강효중(이만순) 김상정(김상희) 박원형(송영주A)
배상은 정낙연 최순심

● 가정예배감사헌금 정낙연

● 건축헌금 노만수(박순분) 이영숙 정순근(송은주)

● 선교헌금

강효중(이만순) 곽명자 권영자 김상정(김상희) 박귀남 박철운
(원정자) 송선남 안영균(전숙자) 이경숙 이필순 장영심 정강용
(곽유자) 정낙연 최순심 홍기철(고난홍)

● 구제헌금 김명순 오금숙 이영숙 정동현 정순근(송은주)

● 비전헌금

강효중(이만순) 곽명자 김상정(김상희) 박원형(송영주A) 안영균
유대일(박경숙) 이준희 장영심 정낙연 최순심

교 회 소 식

▶ 성령강림절 후 열넷째주일(예전색깔: 녹색)

▶ 10월 26일 "함께 교회 가는 날"입니다

* 기도함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음 전하고 초대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4일	전도를 위한 1일 부흥회 각 교구별 워크숍 및 기도회
9월 21일	태신자와 2차 만남주간 / 성찬식
9월 28일	전교인 노방전도 주일 / 온가족 예배
10월 5일	추석명절 / 가족전도 주간
10월 12일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10/13~10/17) "주여! 나도 한 영혼 전도하게 하소서" 전교인 찬양기도회, 은혜나눔 10/17(금)
10월 19일	태신자와 3차 만남주간
10월 26일	함께 교회 가는 날! "지역주민과 함께 예배 드리기"

▶ 전도를 위한 1일 부흥회: 오후찬양예배 시(강사: 황홍렬 목사)

▶ 각 교구별 워크숍 및 기도회: 오후찬양예배 후

* 대상: 구역장, 권찰, 담당장로

* 장소: 1교구, 3교구(월만한 물가) / 2교구, 4교구(본당)

▶ 세례예식: 2부예배 시

(세례자: 고삼녀, 김삼순, 이차순, 정영란, 차상록)

▶ 성찬식: 다음주일(21일) 1,2부예배 시

한주동안 경건하게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나회 월례회: 2부예배 후, 한나회실

▶ 출산: 4-3구역 신미자 권사 득손녀(곽기환 · 이주희 가정), 9일

▶ 헌물: 강대상 화분 2점-무명

예배위원 및 식당담당

	이번주일(9/14)	다음주일(9/21)
안내위원	양명순 한영숙	양명순 한영숙
헌금 위원	1부 박진성 박성찬	김종안 임승호
	2부 이종재 권모세	최승렬 소병국
식당담당	김경숙 정영혜 최영숙 한 현 신현미 이진옥 이선정 이은경 윤영심	김경숙 정영혜 최영숙 한 현 이경숙 김은임 김옥남 모경애 김연숙 김상희
	정순근 김수용 김만수 정승호	소병국 유대일 정성운 김길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제74권 37호 2025년 9월 14일

< 은성교회 비전 >

< 2025년 총회 표어 >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은성교회!! (요 3:16)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주 일 예 배

1부 : 오전 9:00

2부 : 오전 11:00

* 개 회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예배의부름 송 영

* 참회와선언 인도자

* 교 독 문 88번(세례1)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90장

감사와도고 정강용 장로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1장 17절~44절(신약165쪽)

찬 양 1부: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2부: 살롬 찬양대 "가장 높으신 귀한분"

말 씀 선 포 믿으면 주의 영광 보리라

세 례 예 식 (2부예배 시) 집례: 담임목사

봉 헌 546장

교회생활안내 인도자

* 결단의찬송 "살아계신 주"(1,3절)

* 축 도 담임목사

※ 다음주일 기도 조광조 장로

49262 부산광역시 서구 해동로 22번길 3-4

TEL 256-3918, 241-3927 FAX 241-7232

<http://eschurch.or.kr> 담임목사 홍기철

오 후 찬 양 예 배

오후 2:30 인도: 담임목사

찬	양	솔리데오
기	도	임승호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28장 19절~20절(신약53쪽) 히브리서 13장 12절~16절(신약369쪽)
특	송	교회학교 문화교실
말 씀 선 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황홍렬 목사(부산장신대 은퇴교수)
찬	송	505장
교 회 소 식		담임목사
축	도	담임목사
※ 다음주일 기도		장현기 안수집사

수 요 예 배

I 부: 예배(오전10:00)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252장
기	도 오영숙 권사
성 경 봉 독	전도서 8장 1절~8절(구약956쪽)
말 씀 선 포	지혜로운 인생
찬	송 540장
교 회 소 식	김선희 목사
축	도 김선희 목사

II부: 경로대학 특별활동

※ 다음수요 기도 장희영 권사

금 요 성 령 기 도 회

오후 8:30

찬	양	IL찬양단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2장 1절~13절(신약188쪽)
말 씀 선 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	도 회	합심기도 및 개인기도
축	도	담임목사

새 벽 기 도 회

월~금 오전 5:30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46:5)

가 정 예 배

1. 사도신경: 다함께

2. 찬송: 358장 1,2절

3.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11절

4.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화살이 과녁을 빗나가듯,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온갖 사특한 일을 꾸미고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를 죄짓는 장소로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직접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창3:1~6)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으로서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같이 찢어 버리고(삿14:6)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일 정도로 위대한 용사였으나(삿15:5~6),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이방 여인 들릴라의 집을 찾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삿16:4~21) 성경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시119:101)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지 않으려면 절대로 유혹의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죄를 짓게 합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뼈를 깎는 고통을 치르고 간신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TV의 맥주 광고를 보는 순간, 자주 다니던 술집이 생각났습니다. 음주의 충동을 견디지 못한 그는 술집으로 달려가 맥주를 벌컥 벌컥 마셨습니다. 그동안의 피나는 수고가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이전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

해 생각을 사로잡아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해지고 음란과 폭력을 다루는 서적이거나 대중 매체에 더욱 흥미를 갖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롬1:28)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롬12:2),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행하여야 합니다.(벧전3:15)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행자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지도를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죄에 빠지지 않고 바른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시119:9),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119:11)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5. 기도: 설교자

6. 헌금 - 헌금찬송: 358장 3,4절

7. 헌금기도

8. 주기도문: 다함께

항기로운 예물

【온라인 헌금 계좌: 신한은행 100-026-219764 / 예금주: 은성교회】

●십일조

강문옥 강효중(이만순) 광동기 권태홍(황정숙) 김명석(정규자) 김명옥 김복만(구갑순) 김상정(김상희) 박인철 박철운(원정자) 송선남 안영균(전숙자) 양양춘 유대일(박경숙) 이경숙 이정곤(신현미) 장영심 장종임 정강용(곽유자) 정낙연 정동현(옥돌자) 정훈(안미애) 진원옥 최순심